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oluntary Simplicity Life style*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송인숙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 In-Sook Song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V. 논의
II.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	V. 결론
III. 간소한 삶의 실천방안	참고문헌

< Abstract >

The 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 can be the core concept of alternative lifestyle to solve so many problems which were produced by modern materialistic lifestyle.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and the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of 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 and suggest the practical way how to live 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 actively. It's implication on the modern consumer culture and the research or education of home economics was also discussed.

I. 문제의 제기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적 생활방식과 소비문화가 자원고갈이나 환경문제를 초래하며 소비에 사로잡힌 왜곡된 삶을 살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20세기 후반 학자들 사이에 많

은 논의와 공감의 이루어졌다. 이에 기존의 생활방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의 린백 경향 조사연구소의 조사(Elaine, 천수영역, 1996, 재인용)에 의하면 미국 문화에 있어서 간소화¹⁾는 90년대를 이끌어 가는 경향 가운데 하나로

* 본 연구는 1999년도 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방식과 관련된 국내번역서는 'Simplicity'를 '간편화'(천수영역, 1995) 또는 '소박함'(김승욱역, 1999)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의 본래 개념이 복잡한 생활방식을 보다 단순하게 바꾼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잘 살린 '간소화'로 번역용어를 택하였다.

1995년 미국인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3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삶의 전환을 시도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과소비 등을 비롯한 소비문화에 대한 언론의 진단과 비판은 물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즉, 90년대 중반의 각 일간지는 과소비 현상에 대한 특집시리즈를 앞다투어 내었고, 관련기관에서는 한국인의 소비생활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움들이 개최되었으며 한국인의 그릇된 물질주의나 과소비 등의 소비문화현상을 기술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성영신, 1994; 백경미, 1995, 1998; 손상희, 1997; 정준, 1997; 이근후, 1997; 송태희·박효용, 1997; 송순영, 1998)도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들 언론보도나 심포지움 또는 연구들은 대부분 말미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소비문화나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그 변화방향으로는 대체로 지속가능한 소비나 생산적인 소비, 탈물질주의적 또는 절제된 소비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 현상에 대한 기술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비해 바람직한 소비문화 또는 생활양식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언급되고 그 구체적인 개념이나 철학, 또는 실제 실천방안을 다룬 내용은 부족한 편이다²⁾. 물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소비행동에 대해서는 각종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박운아, 1998; 민현선, 1998; 송보경 외, 1998외 다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친화적 소비, 또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포함하여 기존의 소비문화를 벗어나는 대안적 생활양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소비철학의 개념이나 발달, 실천방안 등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the 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을 대안적 생활방식의 핵심 개념으로 보고 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은

최근 관련 연구와 실천의 양면에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환경이나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 삶의 양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가 경제여건이 변화하여 물질적 소비를 '비자발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갖는 주제라고 여겨진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물질주의에 대한 연구(송인숙, 1991)에서 대안적 생활방식으로 간소화한 생활방식의 개념이 소개된 적이 있으며 최근에 중산층 소비자의 생활표준에 대한 연구(손상희 외, 1999)에서 간소화한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가 조사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전자는 개념의 간단한 언급에 그쳤으며, 후자의 연구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없이 생활표준의 변화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간소화한 생활양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간단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이제까지 간소화한 생활양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양식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이 생활양식의 개념과 발전과정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 실제 이러한 생활양식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양식이 현대 소비문화 비판에 따른 대안적 생활양식으로의 함의와 가정학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안적 소비가치와 생활양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이념과 가치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여 소비자학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소비가치에 대한 연구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박종균(1997)은 현대 소비사회의 대중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현대 대중문화의 상품성과 물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문화운동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인격적 문화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대안은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II.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

1. 개념

이 개념은 본래 Gregg(Elgin, 1981, 재인용)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며, 이를 위해 삶의 주된 목적에 부적합한 많은 소유물과 외적인 복잡함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이 생활방식의 주목적은 합리적 도덕적 행동, 영적 성숙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적은 소비를 하며, 환경친화적 자급자족적 경제행동을 하는 것이다(Shama & Wisenblit, 1984; Rudmin & Kilbourne, 1996에서 재인용).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양식의 근본가치는 물질적 간소화(비소비지향 사용패턴), 인간중심척도(소규모 제도와 기술을 원함), 자기스스로의 결정방식, 환경인식(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의존 인식), 인격적인 성장(내적 생활을 탐색, 개발하기 원함) 등이다. 즉 삶의 목적을 단일화시켜 그 안에 성실하고 진실되어 임하며, 삶의 주목적에 부적합한 많은 소유물과 외부의 혼잡함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에너지와 욕망을 질서있게 다스려 다른 방향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어느 방향은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Leonard-Barton & Rogers, 1980).

간소한 삶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저술한 Elaine(1994, 1995, 천수영역)에 의하면 실제 간소화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경우에 따라 간소화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실천적으로 생각한 간소한 삶이란 안락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생활범위를 축소하고 복잡함을 제거하는 일을 뜻한다. 즉, 물질적인 간소화, 인간관계의 간소화, 그리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는 생활방식이다. 즉,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것을 추구하며 일과 소비 중심으로 이끌어 온 기존의 생활방식에 비해 보다 적게, 보다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생활방식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이고, 소유물을 없애 쌓아온 살

림살이를 줄이며, 주체적이고 자기 통제적으로 소비를 조장하는 매체에 대처하고 소비습관을 바꾼다.

이 자발적인 간소함과 관련된 개념으로 검소함, 환경보존적 사회, 통합적인 생활방식, 균형 잡힌 삶, 영적 가난함, 단순한 생활과 풍요로운 정신세계, 환경친화적 소비자, 사회적 책임을 지는 소비 등을 검토한 Elgin(1981)³⁾은 자발적인 간소함을 이들 개념의 핵심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 Rudmin과 Kilbourne(1996)은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방식을 물질적인 가치는 줄이고 비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더 부여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물질주의 거부(deliberately denied materialism)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는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양식은 물질주의에서 비물질주의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물질주의적 생활방식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삶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물질적인 간소함(Simplicity)을 자발적으로(Voluntary)택하는 이 생활방식은 결국 내적 비물질적(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보다 중요한 것) 풍요를 위해 외적 물질적인 간소함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발전과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방식의 핵심 축은 자발성 여부(Voluntary or Involuntary)와 간소함 여부(Simplicity or Complexity)의 두 가지이다. 이를 기준으로 이 생활방식과 대비되는 네 가지 생활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① 과거 간소하긴 하였으며 비자발적인 (Involuntary)
3) Elgin은 Wharton 비즈니스 스쿨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미국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류문명의 진화과정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는 특히 대중소비사회의 생활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개인의 삶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Voluntary Simplicity'(1981)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간소한 삶에 대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1〉 자발성과 간소함 여부에 따른 생활방식 유형⁴⁾

간소함(S) 자발성(V)	+	-
+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 (Voluntary Simplicity, +V+S)	현대소비자의 소비사회 인식(비자발적인 복잡함 을 자발적인 복잡함으로 혼동) (Voluntary Complexity, +V-S)
-	가난(Involuntary Simplicity, -V+S)	현대 대중소비사회의 일반적 상태 (Involuntary Complexity, -V-S)

Simplicity) 가난한 삶, ② 산업화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자 노력하며 자발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온 복잡한(Voluntary Complexity) 생활방식, ③ 드디어 도달한 대중소비사회에서 끊임없는 소비를 해야 하는 비자발적인 강제적인 복잡한 생활방식(Involuntary Complexity), ④ 소비나 소유를 삶의 중심에 놓는 물질주의에서 파생된 많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간소화한 생활방식(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의 네 가지이다. 이를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udmin 과 Kilbourne(1996)은 이와 같이 자발성과 간소함 여부로 생활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고 이 분류를 토대로 Elgin(1981)과 Calvinist의 견해(Weber, 1904)를 설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방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Elgin의 견해는 우리의 생활방식이 과거 산업화 이전의 간소하긴 하였으며 비자발적인(Involuntary Simplicity) 가난한 생활방식에서 출발하여, 산업화된 후의 비자발적인 복잡한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소비나 소유를 삶의 중심에 놓는 물질주의에서 파생된 많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간소화한 생활방식(Voluntary Simplicity)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발전해 가며 이를 〈표 1〉의 유형으로 표현하면 (-V+S)→(-V-S)→(+V+S)가 된다는 것이다⁵⁾.

한편 자본주의 발달 초기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비를 억제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Calvinist의 금욕주의도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 Rudmin 과 Kilbourne(1996)은 이 금욕주의를 자

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물질적으로 간소한 삶을 자발적으로 택하여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복잡함을 달성하게 된다고 보고 이 금욕주의도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의 일종으로 보았다. 즉, (-V+S)→(+V+S)→(-V-S)로 그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Calvinist의 견해에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간소함은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복잡함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생활방식이므로 본 연구에서 관심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보통 금욕주의는 물질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 자본주의의 금욕주의는 재화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자본재의 축적이라는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록 초기 자본주의의 금욕주의가 소비재에 대한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물질과 그 축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또 다른 형태의 물질주의일 뿐이다(송인숙, 1991). 따라

4) Rudmin and Kilbourne(1996)이 이분법적 분류를 통해 각 생활방식을 설명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연구자가 표로 구성하여 정리 표현한 것임

5) 생활방식의 발전과정을 〈표 1〉의 개념을 이용하여 종합하면 자발적인 간소함에서 자발적인 복잡함, 그리고 비자발적인 복잡함을 거쳐 자발적인 간소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호로 표기하면 (-V+S)→(+V-S)→(-V-S)→(+V+S)이다. 그러나 Rudmin과 Kilbourne(1996)은 Elgin(1981) 견해에 대해서 특히 비자발적인 복잡함을 거쳐 자발적인 단순함으로 가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자발적인 복잡함의 과정인 (+V-S)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이 때 나타난 자발적인 간소함은 Elgin이 설명한 후기의 자발적인 간소함과는 다르다. 산업화 이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복잡한 생활방식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단순한 생활방식의 선택이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의 가치관은 동서양의 종교들이 근간을 이룬다. 도교, (일본의) 신도, 기독교 등의 정신과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의 가치관을 비교한 Shama(1985)는 이들간에 서로 공통적인 요소가 많아 이들 종교가 지향하는 정신이 결국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의 역사적 근원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즉, 전통적인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 보다는 내세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히 외적 간소함 가운데 내적 풍요를 지향하는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과 유사점을 갖게 된다. 실제 전통적인 종교의 수도장을 보면 자발적인 간소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다.

Elgin(1993; 김승욱역, 1999)에 의하면 이러한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으로서의 변화는 한 개인의 선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이지만 사실은 산업시대의 쇠퇴에 따른 시대적인 요구에 의한 커다란 사회적 흐름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변화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 그리고 다시 생태학적 시대로 바뀌어 감에 따라 이에 맞는 삶의 방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산업시대에 요구되던 물질적 소유와 소비가 삶의 중심인 생활방식에서 생태계 파괴와 빈부격차로 인해 생태학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로 바뀔에 따라 보존과 검소함을 강조하며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생활방식으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생활방식의 발전과정에서 특히 어떻게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복잡한 생활방식에서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자발적으로 간소한 삶을 사는 것은 좀 더 단순한 삶을 살길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방식으로 변화하기 전에 보다 복잡하거나 비자발적인

생활조건으로 산다는 것이 전제된다(Rudmin & Kilbourne, 1996). 실제, 현대 산업사회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비자발적인 복잡한 생활방식이다. 그러나 <표 1>의 네 가지 생활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볼 때 비자발적으로 복잡한 생활방식은 많은 경우 현대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재 삶이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복잡한 생활방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생활의 복잡함이 초기의 자발적인 추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금과 같은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복잡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자발적으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변화하여 강제적인 복잡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계기가 된다고 여겨진다.

현대생활의 비자발적인 복잡함에 대한 인식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예로 미치 앨봄(1998)의 베스트 셀러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일종의 세뇌 같은 것을 받게 되지.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하는지 아나?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이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좋다. 돈은 더 많아야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우리는 그걸 반복하지. 또 그 소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하도록 하네. 그러다가 결국 아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없게 되네. 보통사람은 이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되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네.....(미치 앨봄, 공경희 역, 1998)

또 '나는 소비한다. 내게 강요된 것을...'이라는 한 심포지움(서울대 소비자학과, 1998)의 제목도 이러한 비자발적인 복잡한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비자발적인 복잡함을 겪지 않은 단순한 삶인 자연적인 가난한 생활 즉 비자발적인 간소한 삶은 물질적 성장과 기술발전으로 사람들의 잠재된 갈망이 부추겨지면 쉽게 무너진다(Elgin, 1993; 김승욱 역, 1999). 그 한 예로 저개발국가의 사람들이 일단 산업화되기 시작하면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는 외부적

압력에 따라 복잡한 삶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비자발적인 복잡한 생활방식을 겪은 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택한 간소한 삶은 힘이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소한 생활방식로의 변화는 현대 소비문화가 가진 강요된 비자발적인 복잡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과정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어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Elgin, 1993; 김승욱 역, 1999)한다.

III. 간소한 삶의 실천방안

구체적으로 간소한 삶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또는 현재의 복잡한 생활방식에서 어떻게 간소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간소한 삶에 대한 개념적 철학적 연구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기존의 삶을 떨치고 숲 속으로 들어가 생활한 Thoreau (1854: 양병석 역, 1995)나 역시 산 속에서 무소유의 삶을 사는 법정(1976, 1993, 1998)은 자발적인 단순한 삶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일반인이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실제 사람들이 자발적인 간소한 삶을 살기 위해 특별히 어디론가 갈 필요는 없고 어디에 있던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소한 삶은 Gregg(Elgin, 1993; 김승욱 역, 1999, 재인용)에 의하면 '기후, 관습, 문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각자의 생활수준과 개인의 삶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Thoreau나 법정처럼 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간소한 삶을 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Elaine(1994, 1995, 1996; 천수영 역)⁶⁾에 의해 최근 연속적으로 소개되었다. 이 Elaine의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정돈하는 것이라고 간소한 삶을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점검단계로부터 출발한다. 둘째는 물질적인 간소화를 위해 기본적인 방안으로 집의 크기를 줄이거나 잡동사니를 버린다. 셋째는 쇼핑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구매습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먼저 쇼핑요일을 정하고 꼭 필요한 품목인지를 고려한 후 구매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 은행이나 다른 불일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쇼핑센터를 이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넷째로는 청소나 세탁에서의 과도한 가사표준을 낮추어 부담을 줄이고, 다섯째로 재정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빚을 갚아 없애고 신용카드와 예금구좌를 하나로 정리하며, 대중매체에 접하는 시간을 줄인다. 또 일하는 시간을 줄이며 직장 가까이 집을 선택하고, 무의미한 단체가입에서 탈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Elaine은 이러한 생활의 간소함을 실천하고 남은 시간에 앞에서 맨 먼저 점검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바를 하며 내적인 풍요로움을 갖는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외적인 간소함을 실천하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중산층 미국인의 생활을 고려하여 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각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각 단계의 기본적인 대부분의 실천방안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Elaine은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점검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난 1년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지난 5년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실제 우리 나라의 한 조사에서는 가정 내에서 쓰지 않는 생활용품을 평균 196개나 보유하고

6) Elaine은 사업가로 활동하다가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미국인으로 외적 간소함을 통해 내적 간소함을 찾아가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책으로 펴내고 있다.

고 있었다(월간 소비자, 97. 11). 따라서 이러한 자문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천과정은 수도원에서의 생활 방식과도 비슷하다. 어떤 종교의 수도장 이든 외적 물질적인 단순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그곳에선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며 우리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집중할 수 있고 행동 하나에도 세심한 감각을 지닐 수 있다. 내적인 풍요로움에 달성하려면 정신을 어지럽히는 것을 치우는 외적인 간소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종교의 수도장, 예를 들어 가까운 산사나 가톨릭의 수도원을 보면 자발적인 간소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수도자들의 독신으로써의 삶은 가족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극단적인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방안을 다시 정리하면 간소화는 물질적인 간소화와 정신적인 간소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물질적인 간소화는 소비와 소유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매의 간소화가 따라야 한다. 정신적인 간소화를 위해서는 외부의 요구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일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외부의 간소화는 응답기를 이용하여 전화나 초인종에 대한 응답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일의 간소화는 소비나 소유를 줄이면 소득원인 일의 양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상생활의 간소화는 의식주생활의 관리를 단순화하여야 하며 쓸데없는 약속을 줄여 인간관계도 단순화할 수 있다.

IV. 논 의

이상에서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의 개념과 발전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현대인이 기존의 생활방식을 이러한 생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반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즉,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의 실천이 현대 소비문화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가정생활의 복

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가정학의 실천이 넘면에서 볼 때 이 생활방식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논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현대 소비문화에의 함의

현대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지나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그로 인한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과잉소비나 과시소비가 문제되고 있으며(백경미, 1998), 이는 자본에 의한 끊임없는 욕구의 창출로 인한 것(이진우, 1998)이다.

이진우(1998)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이미지를 산출하는 의미작용이고, 스스로를 타인과 구별짓는 사회적 행위이며, 끊임없는 욕구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심리적 빈곤의 확대라 지적하였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의식과 이차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인의 돈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며 영원히 자기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의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은 물질의 증식과정 그 자체이며 파괴적이라 할만한 증식력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끝없는 소비와 탐욕은 모든 가치와 의미를 물신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오염을 낳는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증식하는 무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광고는 이미지의 전달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조장하며 물신숭배에 빠져버린 대중은 소비를 통해 자기도취에 탐닉한다고 보았다.

현대 소비문화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현대인이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이러한 소비문화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활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광고와 판촉활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 돈을 벌어야 하는 후기 자본주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복잡한 생활방식에서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현대 소비문화가 가진 강요된 비자발적인 복잡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생활방식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본 점과도 일치한다.

백경미(1998)도 현대 소비사회의 일반적 문제로써 과잉소비 문제, 과소비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신소비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가정 내에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며, 의식주의 간소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소비욕구를 절제하여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 손상희 등(1999)도 우리나라 주부들이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비주의적 생활표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역시 그 변화의 방향을 간소화한 생활방식으로 보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방식은 이와 같이 현대 소비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생활양식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 정의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즉, 자발적인 가난함을 실천하여 소비의 욕망을 줄임으로써 비자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집단과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여 자원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전통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할 뿐 아니라 과거의 고대 동양사상가들이 강조해 온 소비규범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독교의 소비규범은 물질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보며, 절제하는 검소한 생활양식을 살피고 그 목적은 이웃과의 나눔에 있다(두란노, 1992). 즉 절약이 미래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기 위한 것이다. 고대동양사상가들은 소비규범으로 검약(儉約)과 균분(均分)을 강조했다(이승환, 1998). 특히 지배계층의 욕망의 절제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신분에 따라 소비에 제한을 두어 사람들의 무한한 소비욕망을 억누르는 사회적 규범 역할을 하고 각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 소비욕구와 관련된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거의 소비규범은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욕구를 소비행위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어 소비를 통해 평등이 실현된다는 허구 속에서 무한한 소비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현대소비자와 대비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간소한 삶으로 절제된 물질적 생활을 실천하며 동시에 나눔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소비생활방식이 결국 전통종교와 고대사상가들이 권유하는 소비규범을 따라 살면서 현대소비문화가 파생한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삶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이 있다. Rudmin과 Kilbourne(1996)은 이 생활방식이 부도덕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대량생산의 성공조건으로 대량소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만일 모든 사람이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을 택할 경우 경제시스템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경기의 호황이 경쟁적 소비 덕분이며 갑작스럽게 소비를 줄이면 최악의 경제위기를 부른다(한국경제, 99. 6. 3)는 견해나 우리나라에서 IMF이후 급작스럽게 소비가 줄자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소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에서 생태계의 파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자원의 고갈, 빈부의 격차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 이제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해졌다(송보경 외, 1998)는 점에서 위의 주장은 반박된다. 또 물질주의로 인해 재화의 소비와 소유가 수단적 목적이 아닌 궁극적 목적이 되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전도된 가치관 문제(Bond, 1992)를 바로 잡고 사람들이 소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소비하도록(Kilbourne, 1992)하기 위해서도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은 당위성을 갖는다.

2. 가정학교육에의 함의

자발적인 간소화한 생활방식은 초창기 가정학이 추구하였던 목적과도 부합하고 있다. 초창기 가정학의 정신은 물질적 환경의 효율화를 피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바로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학의 정신은 일찍이 Ellen H. Richards가 표명한 가정학의 목표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 Home Economics Stands For
The ideal home life for today, unhampered by the traditions of the past.
The utilization of all the resources of the modern science to improve the home life.
The freedom of the home from the dominance of things, and their due subordination to ideals.
The simplicity in material surroundings which will most free the spirit for the more important and permanent interests of the home and of society. (Gross, Crandall, and Knoll, 1980 : 391 진한 글씨는 연구자가 강조하기 위해 표시)

즉, 가정학은 '.....물질적 환경을 간소화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좀더 중요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기울일 수 있도록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정학의 목표를 상기할 때 가정의 물질적 환경을 효율화하고 간소화함과 동시에 삶에서 좀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가정학자의 연구목표중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소비생활의 가치가 바로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정학은 물질적 환경을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초기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지나친 의·식·주 환경의 복잡화에 기여해 오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초기 자본주의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발적으로 복잡한 생활을 추구해오다 후기에는 복잡한 생활이 강요되어 비자발적으로 된 사회적 상황이 가정생활에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세키구치후사(김외숙·장용선 공역, 1996)의 견해로 가정학이 의·식·주 등의 전공분야

세분화로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져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를 떠나서 물질에만 중점이 두어지기 쉽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과거 가정학의 오랜 전통 속에서 생활기술면에서만 가정을 보아온 방법에 가정학이 물질 추구적으로 되어 현대의 물질주의에 일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세키구치후사의 주장은 우리 나라 가정학 심포지움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즉, 상품화시대에 가정학이 생활의 각 분야의 상품화를 다루게 되므로 상품화에 따른 문제 예를 들면 몰신숭배 현상 등을 분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전경수, 1993).

셋째, 가정 내 여성의 역할 자체가 물질주의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끊임없이 사들이고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 훌륭한 주부의 역할은 곧 물건을 잘 고르고 사들이며 이를 잘 관리하는 역할과도 연결되어 여성은 쇼핑을 좋아하며, 물질주의적이며 소비주의적이라고 비난받곤 한다. 젊은 여성의 선물 쇼핑을 주제로 한 면담자료를 분석한 연구(Fisher & Arnold, 1996)에서도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잘 돌보기 위한 여성의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한편 가족에게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물건을 획득하고 소유하는데 과도히 몰두하는 것은 물질주의로 비난받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하여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자체가 상품의 구매와 획득에 집착하기 쉬운 점을 지적하였다.

여성학에서는 기업가들이 여성의 이러한 주부 역할을 소비 확대의 대상으로 만드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주부'라는 신화를 만들어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이영자, 1996). 즉 현대여성이 자기 실현을 프로주부와 동일시하도록 유도하여 가정관리를 담당하는 주부에게 각종 광고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 좋은 물품을 전문적으로 세련되게 구입하는 소비문화를 받아들여게끔 한다는 것이다.

가정학에서는 가정생활을 물질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점들을 인식하여 가정학이 초기에 추구하였던 물질적인 생활환경의 간소화와 효율화의 목표를 진정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선 지금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노력에서 가정학이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V. 결 론

이상에서 대안적 소비문화로서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의 개념과 발전과정, 구체적인 실천내용, 현대소비문화와 가정학에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지나친 소비를 지양하고 환경과 자원문제를 고려하는 소비를 해야하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방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물질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으로 적합하다. 따라서 가정학의 각 부문에서 이 생활방식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간소한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는 한 개인의 내적 성찰과 결단에 따른 행동변화라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며 작은 변화로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개인 개인의 내적 결단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삶의 방식이 바뀔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변화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산업문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후속 연구로는 우리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간소화한 생활방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능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래 이 생활방식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양식이라기 보다 소비생활이면에 자리잡은 가치와 신념이며 또 단순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양적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다(Rudmine & Kilbourne, 1996). 따라서 질적 조사로 내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 생활방식 연구에 대한 방법론 면에서 비판이론의 수용(Kilbourne, 1992)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실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생활방식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90년대 들어 우리 나라 가정학에서 환경친화적 소비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환경문제라든가 자원고갈에 따른 소비생활에서의 실천방안은 단편적이고 외적인 행동 하나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는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생활의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그보다 내적이고 근본적인 소비가치와 생활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총체적인 행동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간소화한 생활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에 대한 실천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환경과 자원문제를 고려한 윤리적 선택문제를 소비자학에서 가르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색(Peterson, 1993)하거나 생활방식에 대한 성찰과 선택을 돕는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두란노 편집부(1992), 크리스찬의 소비생활, 도서출판 두란노
- 2) 미치 엘름, 공경희 역(1998),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세종서적
- 3) 박종균(1997), 소비사회·대중문화·기독교, 한들
- 4) 법정(1976), 무소유, 범우신서
- 5) 법정(1993), 버리고 떠나기, 샘터사
- 6) 법정(1998), 산에는 꽃이 피네, 동쪽나라
- 7) 백경미(1998), 현대소비문화와 한국소비문화에 관한 고찰, 소비자학연구 9권 1호: 17-32
- 8) 성영신(1994), 한국인의 그릇된 물질주의와 과소비 유형,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97-118
- 9) 세키구치후사 외, 김외숙·장용선역(1996), 가정철학, 교문사
- 10)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월간소비자 1997년 12월호
- 11) 손상희(1997), 소비사회와 청소년 소비문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41-353
- 12) 손상희·박정현·천경희(1999), 중산층 소비자의

- 생활표준과 그 환경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0(1): 99-118
- 13) 송보경·김재옥(1998), 소비의 사회학, 집현전
- 14) 송인숙(1991), 물질주의에 관한 고찰,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1(1): 91-104
- 15) 송태희·박호용(1997), 우리 나라 소비실태, 한국소비자보호원
- 16) 송순영(1998), 신세대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17) 이승환(1998), 고대동양의 소비문화, 한국소비문화학회 '98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 18) 이영자(1996), 소비사회와 여성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12차 춘계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105-147
- 19) 이진우(1998), 풍요사회의 신화와 현실의 상품화 - '상품'의 생산에서 '이미지'의 소비로-, 한국소비문화학회 '98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 20) 전경수(1993), 상품화시대의 가정학을 위한 토론,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21) Elaine st. James(1994), Simplify your life, 천수영 역(1996), 나의 삶을 깃털보다 가볍게 I, 도서출판 문화문고
- 22) Elaine st. James(1995), Inner Simplicity, 천수영 역(1996), 나의 삶을 깃털보다 가볍게 II, 도서출판 문화문고
- 23) Elaine st. James(1996), Living the Simple Life, 천수영 역(1996), 간편한 것은 아름답다, 도서출판 문화문고
- 24) Elgin(1993), Voluntary Simplicity, rev. ed., 김승욱 역(1999), 소박한 삶의 철학, 바다출판사
- 25) Thoreau H. D (1854), Walden, 양병석 역(1995), 월든, 범우사
- 26) Bond E. J(1992), Materialism as a Fundamental Mistake About Value, in Rudmin F. and M. Richins ed., Meaning, Measure, and Morality of Materialism, Proceedings of the Research Workshop on Materialism and other Consumption Orientations, 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27) Elgin D.(1981), Voluntary Simplicity: Toward a Way of Life That Is Outwardly Simple Inwardly Rich, 1st ed., New York: Morrow
- 28) Fischer Eileen and Stephen Arnold(1992), Woman in a Material World: Two Interpretations of a Consumer Case Study, in Rudmin F. and M. Richins ed., Meaning, Measure, and Morality of Materialism, Proceedings of the Research Workshop on Materialism and other Consumption Orientations, 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29) Gross, Crandall, and Knoll(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Prentice Hall
- 30) Kilbourne William E.(1992), On the Role of Critical Theory in Moving Toward Voluntary Simplicity, in Rudmin F. and M. Richins ed., Meaning, Measure, and Morality of Materialism, Proceedings of the Research Workshop on Materialism and other Consumption Orientations, 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31) Leonard-Barton D. and E. M. Rogers(1980), "Voluntary Simplicit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7: 28-34
- 32) Peterson A. L.(1993), Ethics Education in Family and Consumer Economics: Perspectives and Possibilities, Advancing the Consumer Interest 5(1): 6-11
- 33) Rudmin, Floyd W. and William E. Kilbourne (1996), the Meaning and Morality of Voluntary Simplicity-History and Hypotheses on Deliberately Denied Materialism, in Belk etc. ed., Consumption and Marketing-macro dimension,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166-215
- 34) Shama, A.(1985), "The Voluntary Simplicity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4): 57-62